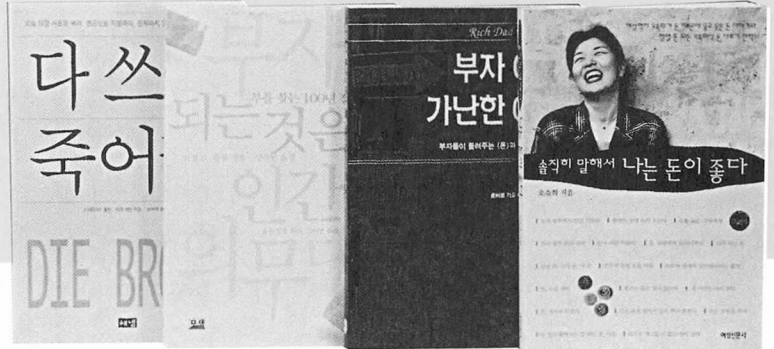


돈에 대한 사회적 통념 깬 생활철학서들

돈과 부자에 대한 허위의식에 도전한 화제의 책

우리 사회에는 돈과 부자를 터부시하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서점가에는 이같은 통념을 정면으로 부정한 일련의 책들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책제목대로 '부자가 되는 것이 인간의 의무'라고 주장하는 이 책들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도록 권유하고 있다. 격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파격적인 생활철학을 제시한 책들의 면모를 살펴본다.



내심오야 돈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마는 겉으로는 돈에 대해 초연한 것이 아직은 우리네 미덕이다. 누구나 돈을 좋아하지만 그걸 곧이 곧대로 표현하는 것은 점잖지 못한 행동으로 여긴다. 돈에 초연한 척이라도 해야 관찮은 대접을 받는다. 때문에 성(性) 문제에 이중잣대를 겨누는 것처럼 돈에 관해서도 이중적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돈에 대한 표리부동한 태도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화제의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버트 키오사키·샤론 레흐트, 형선호, 황금가지)가 그 대표적인 징후. 전동차에서 심심찮게 마주치는 이 책을 펼쳐든 셀러리맨에게서는 '부

자 아빠'로 거듭나기 위한 안간힘마저 읽힌다.

'취 경주'에서 벗어나라

그것은 다람쥐 쳇바퀴 같은 '취 경주'에서 벗어나려는 안간힘이다. '취 경주'란 평균적인 교육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평범한 삶을 가리킨다.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초·중·고교를 거쳐 대학에 진학한다. 대학 또는 대학원을 나와서는 안정된 직장을 얻는다. 의사나 변호사 혹은 군인이나 공무원이 된다. 돈을 버는 것과 동시에 소비를 시작하고, 얼마 후에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기른다. 아이가 커갈수록 돈은 더 많이 필요해지고, 부모는 더 열심히 일한다.

이 책은 이런 '취 경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역설한다. '취 경주'에 갇혀 평생을 보내는 것은 "회사의 주인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정부를 위해서, 그리고 융자금과 신용 카드를 갚아야 하는 은행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불과한 까닭이다. 그런데 '취 경주'에서 벗어나는 길은 회계와 투자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 말고는 다른 뾰족한 방도가 없다.

이 책은 누구든 선택에 의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자 아버지와 가난한 아버지의 대비를 통해 제시한다. 가난한 아버지가 돈을 좋아하는 것을 모든 악의 근원으로 치부하는 데 비

“사람들이여, 돈에 눈을 떠라”



경기 김포시 고촌면에 있는 자택에서 오숙희씨(41, 여성운동가)를 만났다.

— 《슬직히 말해서 나는 돈이 좋다》가 이런 종류 책의 물꼬를 튼 것 같다.

“돈의 철학에 관한 지침서는 꼭 필요하다. 돈에 대한 확고한 견해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외국에서는 돈에 대한 얘기를 아무 거리낌없이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

다. 우리 사회에는 돈을 두고, 극단적인 견해만 있을 뿐이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와 돈을 튀기는 방법이 대치하고 있으나, 실생활은 그 사이에 존재한다.”

— 이 책에서 무얼 말하고 싶었나?

“두 극단적 견해의 균형점을 찾고 싶었다. 이 책은 ‘오숙희식’ 돈에 대한 얘기다.

돈과 더불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말한 것으로 철저히 내 개인적인 얘기일 뿐이다. 돈을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이지 유일하고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다. 재테크 서적은 더더욱 아니다. 나는 재테크에는 잼병이다.”

—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들과는 무관한 얘기라는 지적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책을 읽지 않고 하는 소리다. 이 책은 실직 여성가장을 위한 ‘일하는 여성의 집’ 회보에 쓴 〈여자여, 돈에 눈을 떠라〉를 출발점으로 한다. 경제력은 인격의 독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다. 이 책의 독자를 계층의 낮았이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내 얘기는 서민과 빈곤층 여성의 삶에 더 가까이 있다.”

— 독자들에게 한마디.

“이 책을 읽고 자금을 받거나 돈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내 역할은 다한 것이다. 다른 이들이 자신만의 돈 얘기를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오숙희씨는 “땀 흘려 벌지 않은 것은 돈이 아니다”는 지극히 고전적인 금전관의 소유자다.

해, 부자 아버지는 돈이 부족한 것을 모든 악의 근원으로 간주한다. 가난한 아버지는 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위험을 피하라고 하지만, 부자 아버지는 위험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라고 충고한다.

이렇듯 두 아버지는 사물을 보는 관점이 판이한데, 그것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과 운명을 남에게 맡기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출간 1년 만에 10만부의 판매고를 올리며 순항 중이다. 이 책의 폭발력은 한기호씨(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의 지적대로 “돈 좋아하는 걸 내색하면 안된다는 우리 사회의 오랜 허위의식을 정면에서 깬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이 책에 앞서 허위의식에 정면으로 도전한 책이 있다. 《술직히 말해서 나는 돈이 좋다》(오숙희, 여성신문사)가 그 주인공으로 이 책에 대한 호응 역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못지 않다. 지난해 8월 출간된 이 책은 5만부가 팔렸다.

오숙희씨가 돈을 주제로 글을 쓰겠다고 하자 반응은 둘로 갈렸다. “뭣하러 그런 걸 쓰냐”와 “그거 재미있겠다”가 그것이다. 책에 대한 반응 역시 엇갈렸다. 전업주부들은 “무슨 돈 얘기냐”고 한 반면,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은 대체로 “후련하다”는 반응이었다. 가슴 몽클한 대목이 적지 않은데 방송 출연료로 한 톱 내는 친정 어머니의 얘기는 읽는이의 콧등을 찡하게 한다.

부자가 되는 것은 인간의 의무

돈과 부자를 터부시하기는 미국의 사정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물론, 1백여년전 얘기지만 말이다. 《부자가 되는 것은 인간의 의무다》(러셀 H. 콘웰, 강주현, 모색)는 곳곳에서 돈 벌기와 부자를 향한 편견의 극복을 강조한다.

목사이자 신학대학 교수인 콘웰은 젊은이를 상대로 자주 강연했는데 주된 레퍼토리가 “젊은이여, 부자가 되려는 야망을 가져라”였다. 어느날 콘웰의 주장에 의심을 품은 젊은이가 그를 찾아 따지듯 물었다. “교수님은 부자가 되겠다는 야망이 우리를 착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첫걸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성경》에는 ‘돈은 모든 악의 뿌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의기양양하게 제시한 구절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는 대목이었다. 콘웰은 문제의 구절을, 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이상화하는 것에 대한 경계로 해석한다. 또, 콘웰은 부자가 가장 정직한 사람이라는 견해를 표명하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속 좁은 소치로 여긴다. 단, 미국의 부자가 그렇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돈에 관한 철학 및 전략 지침서들은 공히 경제적 독립을 실존적 독립의 전제로 삼는다. 콘웰 또한 마찬가지다. 그는 “자기만의 집을 갖기 전까진, 성인은 진정한 성인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 쓰고 죽어라》(스테판 M. 폴란 · 마크 레빈, 노혜숙, 해냄)는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생활철학을 제시한 책으로 상식을 뒤집는 내용이 이채롭다. 오늘 당장 사표를 써라’ ‘현금으로 지불하라’ ‘은퇴하지 말라’ ‘다 쓰고 죽어라’ 등이 그것. 얼핏 똥단지같은 소리로 들리나 책을 읽다 보면 이내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이 키우기는 가난이 더 좋다》(내일올여는책)에서 돈은 “삶의 수단일 뿐이며, 들고 도는 것이며,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서원희씨(37, 장미 산모조리원 홍보담당)는 돈에 관한 철학과 전략을 다룬 책들을 어떻게 볼까.



“다원화 시대니까 그런 책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런 견해를 존중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돈과 투자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재미가 없었습니다. 서점에서 들춰보다 덮어버리고 나왔죠.”

돈이 좋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뻔한 얘기를 늘어놓은 것 같아 귀가 솔깃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서원희씨는 돈에 대한 담론이 자칫 돈이 없는 사람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돈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경쟁이 가속화하면서 가난한 사람은 더욱 많아집니다.”

서원희씨는 가난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가난은 결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아이 키우기에도 부유함보다 가난이 더 낫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서씨가 꿈는 가난의 이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현재의 생활에 감사할 줄 알고, 불쌍한 사람들을 잘 도우며,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가난을 불행으로 여기지 말았으면 합니다. 돈에 집착하는 이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닐진대 왜 저러나 하구요. 돈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사표 쓰기는 평생직장이 없어진 직업환경에 대처하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직업관을 바꾸라는 뜻이 담겨 있다. 새로운 직업관의 본보기로는 프로 운동선수들이 거명된다. 이들은 팀의 일원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연봉을 많이 받는 것이 최우선의 관심사다. 프로 운동선수들은 철저히 자신의 일을 돈 버는 수단으로 여긴다.

카드를 버리고 현금을 쓰라고 꼬득이는 이유는 대강 이렇다. 현금은 소비를 어렵고 불편한 절차로 만들고, 21세기의 새로운 유행이 될 ‘절약’과 궁합이 잘 맞으며, 파산을 막는 지름길인 까닭이다. 은퇴하지 말라는 충고는 은퇴에 관한 네가지 거짓말에서 연유한다. 참말은 65세는 늙이 나이가 아니고, 일하는 게 노는 것보다 만족스럽다.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내줄 필요는 없으며, 65세가 넘어도 젊은이 못지 않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지침은 가장 잘 사는 방법인 ‘다 쓰고 죽어라’를 구현하는 수단이다. 이 책은 자식에게 유산을 남기는 행위를 부질 없는 짓으로 치부한다. 물려줄 유산이 있다면, 살아있을 동안 남에게 베풀라고 권고한다.

— 최성일 기자